

폴란드 사무소/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7월 5주 ~ 8월 1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① 폴란드 경제 동향

- 폴 6월 건설생산 전년 대비 5.2% 증가, 인프라 투자 중심 성장세 지속(7.20)
 - 폴 통계청(GUS)에 따르면 2026년 6월 건설·조립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5.2%, 전월 대비 11.5% 증가, 계절조정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8% 증가
 - 세부 부문별로는 토목·인프라가 전년 대비 18.7%, 전월 대비 28.9% 증가하며 전체 성장세를 사실상 견인
 - 반면 건축 부문은 전년 대비 2.9% 감소했으며, 전문건설 부문도 5.7% 감소해 민간 건설경기 부진 지속
 - 도로·철도·송배전망 등 선형 인프라 사업과 국가재건계획 자금 집행이 건설 수요 확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 중
 - 특히 CPK, 철도 현대화, 전력망 확충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이 중장기 건설시장 성장 기반으로 평가됨
 - 계절적 요인을 제거할 경우 월간 증가율은 0.1%에 불과해, 건설경기 회복세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기보다는 특정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된 양상
 - 업계는 EU 재정지원 및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가 당분간 건설시장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주택 및 상업용 건축시장은 고금리와 투자 위축 영향으로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분석
 - 이에 따라 2026년 폴란드 건설시장은 '인프라 호황·민간 건축 부진'의 이중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폴란드 기업 부문 고용 감소, 임금 상승 지속(7.23)
 - 폴 통계청(GUS)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업(종업원 10인 이상) 평균 고용은 전년 동월 대비 0.9% 감소
 - 같은 기간 기업 부문 평균 월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9,401.58즈워티(약 2,170유로)로 집계

- 2026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임금 상승률이 물가를 상회하며 실질임금 증가세 유지
- 노동가족사회정책부는 6월 실업률이 5.8%로 전월(5.9%)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
- 한편, 2026년 최저임금은 4,806즈워티로 전년 대비 3.0% 인상됐으며, 올해 1분기 평균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6.7% 상승한 바 있음

○ 폴란드, 주택 인허가 18.9% 증가(7.20)

- 2026년 상반기 폴란드 주택 준공 물량은 94,9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으며, 신규 주택 공급 회복세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양상
- 같은 기간 주택 인허가 건수는 145,100호로 전년 대비 18.9% 증가해 최근 수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향후 1~2년 내 공급 확대 가능성 시사
- 주택 착공 건수는 114,600호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6월 말 기준 건설 중인 주택은 858,500호로 집계
- 인허가 증가세는 개발사업자가 주도했으며, 인허가 건수는 96,000호로 전년 대비 25.4% 증가해 민간 투자 회복세를 견인
- 개인 주택 건설 부문도 45,100호의 인허가를 확보하며 전년 대비 9.6%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시장 회복 조짐 확인
- 주택 준공은 개발사업자 57,400호(+0.7%), 개인 건설 34,100호(+4.2%)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두 부문이 전체 공급의 96.4%를 점유
- 사회임대주택은 누적 2,531호로 전년 대비 74% 증가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제한적 수준
- 지역별로는 마조프세주가 준공(18,900호), 착공(21,800호), 인허가(25,700호)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실롱스크주와 마워폴스카주가 뒤를 이음
- 특히 실롱스크주는 인허가(16,800호) 대비 준공(8,600호) 비율이 높아 향후 신규 공급 확대가 가장 두드러질 지역으로 평가
- 시장에서는 2024~2025년 고금리와 수요 둔화로 위축됐던 주택시장이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하며, 2027년 이후 공급 증가에 따라 건설사·하도급업체 확보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을 제기

- 다만 건설·조립 가격이 전년 대비 5.5% 상승하는 가운데 건축 부문 생산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건설 인력 및 시공 역량 부족이 신규 주택 공급 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됨

○ 폴란드, 구매력 기준 EU 최저임금 상위권 유지(7.31)

- EU 통계청(Eurostat)의 구매력평가(PPS) 기준 분석 결과, 폴란드의 최저임금은 1,547 PPS로 집계되며 EU 회원국 중 상위 9개국에 포함
- 폴란드는 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 국가들을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해 지역 내 상대적으로 높은 실질 임금 경쟁력을 입증

○ 2026년 상반기 폴란드 세일 앤 리스백(Sale-and-Leaseback) 시장 동향 및 전망

- 시장 규모 및 성장세(2026년 상반기)

- 거래 규모 : 상반기 공개 거래액 약 380백만 유로(비공개 거래 포함 시 약 390백만 유로/ 약 1.6조 즈워티)
- 성장률 : 전년 동기(338.6백만 유로) 대비 약 15%(50백만 유로 이상) 증가
- 거래 구조 변화
 - ▶ 2025년 상반기 : 5건의 거래(총 10개 자산), 단일 메가 딜(Eko-Okna 공장 2.5억 유로 이상) 주도
 - ▶ 2026년 상반기 : 3건의 거래(총 16개 자산), 포트폴리오 거래 및 섹터 다변화로 시장 체질 개선

- 상반기 주요 2대 대형 거래(Megadeals)

- 상반기 전체 거래액의 대부분은 물류 및 대형 유통 포트폴리오 2건이 차지함

구분	오송(Auchan) 쇼핑센터 포트폴리오	라벤 그룹(Raben Group) 물류 포트폴리오
거래규모	210백만 유로 이상(약 9억 PLN)	169백만 유로(약 7.2억 ~7.25억 PLN)
자산규모	8개 쇼핑센터(약 208,000m ²)	8개 물류 창고 시설(약 150,000m ²)
주요지역	비아워스토크, 글리비체, 쓰노비에츠 등 8개 지역	포즈난 물류 캠퍼스(4개) 및 기타 4개 지역
임대조건	15년 장기 임차 (연장 옵션 보유)	15년 장기 Triple-Net(NNN) 임차계약
비고	대형 리테일 세일앤리스백 시장의 복귀	핵심 사업 자산(Mission-critical) 기반 모델

- 주요 성장 동인 및 섹터별 특징

- 물류·창고(Logistics & Warehousing)
 - ▶ 상반기 전체 물류 투자액(7억 유로 이상) 중 라벤 거래가 큰 비중 차지
 - ▶ 물류 자산은 '핵심 사업 자산(Mission-critical)' 성격이 강하고 표준화된 NNN 계약 작성이 용이해 세일앤리스백에 가장 적합
- 리테일 Retail)
 - ▶ 대형 마트(Auchan)의 자본 회수 및 현대화·확장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 리테일 파크에 대한 투자자 수요도 지속
- 해외 자본 유입
 - ▶ 중동유럽(CEE) 내 핵심 세일앤리스백 시장으로 폴란드가 부상하면서 해외 투자자의 유입 및 거래 구조 표준화 진행

- 2026년 하반기 전망

- 거래 수 증가 및 중소형 딜 중심
 - ▶ 하반기에는 메가딜보다는 수백만~수천만 유로 규모의 중소형 자산 및 포트폴리오 거래가 다수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연간 신기록 달성 가능성
 - ▶ 현재 추세 유지 시 2025년 연간 신기록(약 35억 즈위티)을 경신할 전망
- 제조업 섹터의 복귀
 - ▶ 은행 대출의 대안으로 세일앤리스백을 선택하는 제조 기업이 늘면서 물류·리테일과 함께 하반기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분석

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

○ IMF, 우크라이나 GDP 성장률 1.0~1.6% 전망(7.21)

- IMF는 2026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1.0~1.6%로 제시, 2027년에는 3.5%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6년 10.5%까지 상승한 뒤 2027년 8.0%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
- 일반정부 재정적자(보조금 제외)는 GDP 대비 23.5%(2025년)에서 21.1%(2026년), 17.8%(2027년)로 점진적 축소가 예상되나, 국가부채는 2027년 GDP 대비 111.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IMF는 우크라이나 중앙은행(NBU)의 독립성 유지와 환율 유연성 확대를 지지, 외환시장 자유화는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
- 국제준비금은 2025년 573억 달러에서 2026년 655억 달러, 2027년 666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외국인직접투자(FDI)는 GDP 대비 1.3%(2026년), 2.6%(2027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IMF, 우크라이나 실업률 2027년 11.3% 전망,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지속(7.29)
 - IMF는 우크라이나의 실업률이 2027년 11.3%에 이를 것으로 전망, 2026년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도 노동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
 -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위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공식 등록 실업자는 93,1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전월 대비 1.3% 감소, 2026년 상반기 누적 실업자 수는 220,6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
 - 다만 IMF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실업률을 산정하는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 통계는 고용서비스에 등록된 인원만 집계하고 있어, 등록 실업자 감소가 실제 고용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
 - 2026년 6월 말 기준 우크라이나 국가고용서비스(State Employment Service)에 등록된 구인 건수는 63,200건으로, 등록 실업자 3명당 약 2개의 일자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기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노동시장 내 구조적 미스매치가 심화되는 상황
- 우크라 중앙은행(NBU) 기준금리 15.5%로 인상, 물가 안정 기조 강화(7.30)
 - NBU는 근원물가 상승 압력 지속과 연말 소비자물가 상승률 확대 전망을 반영해 기준금리를 15.5%로 인상했다고 발표
 - NBU는 이번 금리 인상이 흐리우냐화 자산의 투자 매력을 유지하고 외환시장 안정 및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를 통해 물가를 2027년 중 목표치인 5%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
 - 안드리 피슈니(Andriy Pyshnyy) NBU 총재는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을 포함한 긴축 통화정책을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 우크라이나 산업용 부동산 투자 회수기간 장기화(7.31)

- 우크라이나 산업용 부동산의 평균 투자 회수기간은 약 12년으로, 시장 적정 수준(8년)을 크게 상회해 물류창고 대비 투자 매력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기존 노후 산업시설이 신축 공장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면서 신규 산업단지 및 생산시설 개발의 수익성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
- 다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500~1,000m² 규모의 'White Industry Box' 유형은 높은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해 유망 투자 분야로 부상
- 제조기업들은 키이우 등 대도시 인근 입지를 선호하고 있으나, 상당수 산업단지가 외곽 지역에 조성돼 공실 문제가 발생, 향후 입지 경쟁력과 사업모델 개선이 산업단지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지목됨

③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

○ 폴, NATO CEPS 확대 대응 연료 파이프라인 건설 허브 유치 추진(7.21)

- CEPS는 1950년대 구축된 NATO 연료 공급망으로, 현재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독일을 연결하는 약 5,000km 규모의 군·민 겸용 인프라이며, 해당 파이프라인 건설·관리센터를 폴란드에 유치하기로 결정

○ Erbud, 오스트루프 열병합발전소 설비 공급·유지보수 계약 체결(7.20)

- 폴란드 건설기업 Erbud가 Tedom Poland와 127.7백만 즈워티 규모의 열병합발전(CHP) 설비 공급·설치 및 유지보수 하도급 계약을 체결
- 사업은 Getec Energia가 추진하는 오스트루프(Ostrów) 열병합발전소 건설의 일환으로, 총 4기의 가스복합 열병합발전 설비 구축을 포함

○ 美, 폴란드 NATO 핵공유(Nuclear Sharing) 참여에 긍정적 입장 표명(7.21)

- 美 행정부가 폴란드의 NATO 핵공유 프로그램 참여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폴 공군 F-35A의 B61-12 전술핵 탑재 인증 가능성이 제기됨

- **Qualitas Energy, 117MW 태양광 사업에 53백만 유로 금융조달 완료(7.20)**
 - 재생에너지 투자사 Qualitas Energy가 폴란드 내 총 117MW 규모 태양광 포트폴리오 건설을 위해 약 53백만 유로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확보
 - 사업은 마조프세주 스워니아비(Słoniawy)와 시비엥토크시스키에주 콘스키에(Końskie)에 위치한 2개 신규(Greenfield) 태양광 발전단지로 구성
 - Qualitas Energy는 현재 폴란드에서 운영 및 건설 중인 600MW 이상 규모의 태양광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1.2GW 이상의 육상풍력 개발 파이프라인을 확보 중
- **Entrix, 폴 8.8MW 배터리저장장치(BESS) 사업 최적화 계약 체결(7.21)**
 - 독일 에너지 최적화 기업 Entrix가 Low Carbon과 프세보르스크(Przeworsk) 소재 8.8MW/17.6MWh 규모 BESS 사업 운영 최적화 계약 체결
 - 해당 사업은 인허가 및 개발 절차를 완료한 건설준비(Ready-to-Build) 단계로, 2027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추진 중
 - Entrix는 앞서 트세비니아(133MW) 및 푸와비(4MW/16MWh) BESS 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으며, 폴란드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 중
- **CPK·Budimex, 우치 파브리치나 철도 터널 분기구간 공사 재개 계약 체결(7.23)**
 - CPK와 Budimex가 113백만 즈워티 규모의 Łódź Fabryczna 철도 터널
 - 이번 계약에 따라 CPK는 공사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PKP PLK가 공사비 부담과 설계도서 제공, 준공 후 시설 인수를 맡는 역할 분담 체계 구축
 - 해당 공사는 바르샤바-우치-브로츠와프·포즈난 고속철도(KDP) 핵심 구간으로, 2032년 바르샤바-우치 개통, 2035년 브로츠와프·포즈난 연장 개통 계획에 맞춰 추진 예정
- **R.Power, 폴란드 대규모 ESS 2개 사업 EPC 계약 체결(7.23)**
 - R.Power가 폴 Dziegielewo(300MW/1,200MWh) 및 Gdańsk(250MW/1,000MWh) ESS 사업의 EPC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건설 단계 착수
- **Grupa Azoty 계열사 노조, 단체교섭 분쟁 공식 개시, 파업 가능성 고조(7.23)**
 - 폴란드 화학기업 Grupa Azoty 산하 켄지에진코즐레, 타르누프, 푸와비, 폴리체

사업장의 연대노조가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 분쟁을 공식 개시, 파업 정보 발령

- 푸와비 사업장 경영진은 회사 경영 여건상 현재 요구사항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부 요구는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 Grupa Azoty, 노조 총파업 추진으로 노사 갈등 심화(7.28)

- Grupa Azoty 산하 푸와비·폴리체 공장에서 임금 인상, 안전 개선 및 경영 의사 결정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이 공식화되며 노조가 총파업을 추진

○ Orlen, 2026년 2분기 자산손상차손 19억 즈워티 반영 예정(7.23)

- 폴란드 국영 에너지기업 Orlen은 2026년 2분기 연결재무제표에 총 19억 즈워티 규모의 자산손상차손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발표
- 손상차손의 대부분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New Chemistry' 프로젝트 관련 투자 지출에 따른 것으로, 국제회계기준(IAS 36)에 따른 자산가치 평가 결과에 기반
- 별도재무제표에는 석유화학 부문(ORLEN CGU Petrochemia) 자산에 대한 16억 즈워티 규모의 손상차손이 포함될 전망
- 이번 손상차손은 현금 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회계상 조정이며, 최종 수치는 외부 감사 후 확정될 예정
- Orlen은 2026년 2분기 최종 연결재무제표를 오는 8월 6일 공시할 계획임

○ '로컬 콘텐츠(Local Content)' 도입 가속화, 정부·기업 간 국가 공급망 구축 가이드라인 구체화(7.24)

- 정부의 제도화 및 측정 표준 마련, 국유재산부(MAP)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한 '로컬 콘텐츠 모범 사례 코드(Kodeks dobrych praktyk)'의 최종 검토를 마치고 총리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통계청(GUS)은 실질적인 국내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산정·관리하기 위한 로컬 콘텐츠 측정 표준 시범 사업에 착수했음
- 구매 프로세스 혁신 및 공정 경쟁 확보, 주요 에너지 산업 기업들은 최저가 위주의 공공조달 방식을 탈피하여 국산 제품 및 자체 공급망 생태계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구매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제3국의 불공정 보조금 수혜 제품으로부터 국가 핵심 인프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엄격한 인증 및 검증 체계 구축을 촉구했음

○ 폴란드 국유재산부, '로컬 콘텐츠' 정책 세부 기준 및 실행안 제시(7.24)

- 국내 기업 인정 6대 가중치 기준 확립, 국유재산부(MAP)는 EU 법규를 준수 하면서 국내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분 구조(25%), 주 사업장 위치(25%), 세금 납부 및 고용(30%), 매출 비중(10%)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 '국내 기업(Local Entity)' 산정 가중치 지표를 정립하고, 조달청 정책과 연계해 대형 국책 사업 수주 시 국내 기업 우대 기반을 마련했음
- 에너지·방산 중심 수조 즈워티 투자의 선순환 도모, 해상풍력(Offshore) 및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실시되는 통계청(GUS)의 로컬 콘텐츠 측정을 시작으로 방산, IT, 인프라 부문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향후 공공 및 국영기업이 집행할 수조 즈워티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자금이 국유 생태계로 재투자되어 국내 MSP(중소 기업) 고용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유도할 방침임
- 그루파 아조티 등 국영 중대형 기업 및 공급망 재활성화, 이번 로컬 콘텐츠 가이드라인은 그루파 아조티(Grupa Azoty)를 비롯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국영 대기업들이 자국 내 원자재·부품·설비 공급망을 우선 활용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생 대형 프로젝트 발주 시 국내 화학·인프라 생태계로 자금이 선순환 되도록 하여 아조티 등 핵심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적극 도모할 방침임

○ Enea, Polaniec 발전소 바이오매스 저장시설에 307백만 즈워티 투자(7.24)

- 폴란드 에너지기업 Enea는 포와니에츠(Polaniec) 발전소의 바이오매스 저장시설 및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307백만 즈워티를 투자, 현재 공정률은 약 70%
- 신규 저장시설은 14,000m² 이상 규모로, 목재·해바라기·벚꽃 펠릿 등을 연간 최대 2백만 톤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됨
- 이번 사업은 발전소 내 6개 발전설비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완료 시 해당 설비의 연료 믹스 중 바이오매스 비중이 최대 40%까지 확대될 전망
- 사업에는 바이오매스 공급시스템 개선, 집진설비 14기 설치, 화재방지 시스템 구축 및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이 포함됨
- 시공은 Polimex Mostostal 컨소시엄이 담당하며, 2026년 말 준공 후 발전소의 저탄소 전환과 전력 공급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폴란드 쇼팽공항 확장사업, 환경승인 획득으로 본격 추진(7.24)

- 폴란드 환경보호청은 바르샤바 쇼팽공항 확장·재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즉시 효력으로 발급하며 사업 추진을 공식 허가

- 사업에는 여객터미널 확장, 남측 탑승동(South Pier) 연장, 비(非)셴젠 구역 확대, 수하물 처리시스템 현대화 등이 포함됨
- 총 투자 규모는 약 940백만 즈워티로, 202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연간 여객 처리능력을 30백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 폴란드·스페인, 고속철도 협력 확대 위한 3년 협약 체결(7.26)

- 폴란드 Port Polska와 스페인 철도인프라공사(ADIF)는 철도 계획·설계, 건설, 시험·시운전, 운영·유지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3년간의 협력 MOU를 체결
- Port Polska는 이번 협력은 건설 계약이 아닌 고속철도 기술·운영 노하우 공유 및 공동 분석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함

○ ArcelorMittal Poland, 고경도 철도레일 'R400HT' 양산 준비 착수(7.27)

- ArcelorMittal Poland는 남부 Dąbrowa Górnicza 제철소에서 고경도 열처리 레일(R400HT)의 생산 준비를 진행 중
- R400HT는 표면 경도 400~440HB(브리넬 경도)의 미세 펄라이트계 강재로, 마모 및 피로 균열 저항성이 높아 중량 화물노선, 급곡선 구간, 도시철도 등에 적합
- ArcelorMittal은 현재 R400HT에 대한 성능 시험 및 생산 공정 최적화를 진행 하고 있으며, 향후 폴란드 및 해외 철도 인프라 시장에 공급할 계획

○ 폴란드 개발기금(PFR), SMR 개발사 OSGE 지분 참여 추진(7.27)

- 국영 석유기업 Orlen과 Synthos가 공동 설립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 Orlen Synthos Green Energy(OSGE)에 폴란드개발기금(PFR)을 신규 주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8월 중 관련 결정이 이뤄질 예정임

○ GDDKiA, 도로공사 계약 물가 연동 상향, 21개 컨소시엄에 20억 즈워티 추가 지급(7.23)

- 폴란드 국가도로청(GDDKiA)이 계약 물가연동(Valorisation) 상한을 15%에서 25%로 상향하는 계약 변경을 마무리 중이며, 총 20억 즈워티가 21개 기업·컨소시엄에 추가 지급 예정
- 적용 대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입찰이 실시된 도로사업 67건(총

855km)으로, 67건 중 66건의 계약 변경이 완료된 상태

- 이와 함께 설계용역 계약 78건과 감리용역 계약 72건의 계약 변경도 완료했으며, 추가 물가연동 적용을 위한 다음 단계 계약 변경도 준비 중
- CPK·Budimex, Łódź Fabryczna 철도 터널 분기구간 공사 재개 계약 체결(7.23)
 - CPK와 Budimex가 113백만 즈워티 규모의 우치 파브리치나(Łódź Fabryczna) 철도 터널 분기구간 잔여 공사 계약 체결
 - 해당 공사는 CPK 고속철도망 핵심 구간인 바르샤바-우치·포즈난·브로츠와프 노선의 기반시설로, 2032년 바르샤바~우치, 2035년 포즈난·브로츠와프 구간 개통 목표로 추진 예정
- 폴란드 가구업체 Intermeble, 우크라이나 르비우주 생산시설 설립 검토(7.24)
 - 폴란드 가구기업 Intermeble이 우크라이나 르비우주 보리슬라우(Boryslav) 소재 InPark Boryslav 산업단지 내 생산시설 설립 가능성을 검토 중
 - InPark Boryslav 산업단지는 총 20헥타르 규모로, 현재 우크라이나 가구업체의 24,000m² 규모 공장이 건설 중이며 추가 12,000m² 규모 산업시설 조성도 추진 중
- Mirbud, GDDKiA와 프루드니크 우회도로 설계·시공 계약 체결(7.27)
- 폴 정부, 제2원전(NPP2) 2040년 상업운전 목표 및 2027년 전략적 파트너 선정 추진(7.28)
 - 폴 정부는 제2원전 사업 추진을 위해 2027년 전략적 파트너 및 원자로 기술을 선정하고, 2028년 최종 입지를 확정할 계획
 - 제2원전 1호기는 2040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며, 기존 석탄 발전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 검토를 진행 중
- 폴란드·우즈베키스탄, 광업·지질 분야 협력 확대 논의(7.28)
 - 양국은 광업기술 도입, 지질 탐사 및 투자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하고 공동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을 검토
- 폴란드·아제르바이잔, 기업사절단 교류 확대 추진(7.28)
 - 폴란드 기업 대표단이 11월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해 B2B 협력, 투자 기회 및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할 예정

○ PKP PLK, 비드고슈치 포르돈 철도 인프라 현대화 사업 완료(7.28)

- 폴란드 철도공사 PKP PLK가 비드고슈치 포르돈 지역의 철도 현대화 사업을 완료했으며, 총 사업비는 42백만 즈워티 규모
- 추가 선로 및 승강장 구축을 통해 열차 교행이 가능해졌으며, 209호선 수송 능력 확대와 향후 철도 운행 확대 기반을 마련

○ 폴란드·글로벌,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경쟁 가속화(7.28)

-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러시아·중국에서는 상업용 SMR이 운영 중이며, 캐나다·미국·영국·체코·루마니아·핀란드 등도 2030년대 초·중반 상업운전을 목표로 건설 및 투자 결정을 본격화
- 캐나다 온타리오주 다들링턴(Darlington)에서는 2026년 4월 GE 히타치(GE Vernova Hitachi)의 BWRX-300(300MW) 첫 호기 기초 설치를 완료하며 공식 착공에 돌입했으며, 2030년 계통연계를 목표로 총 4기 건설 추진
- 영국은 Rolls-Royce SMR(470MW)을 국가 SMR 기술로 선정하고 북웨일스 윌파(Wylfa) 부지에 3기 건설을 추진 중이며, 체코·스웨덴도 동일 기술을 채택하는 등 유럽 내 공급망 경쟁이 확대되는 추세
- 루마니아는 NuScale(77MW×6기) 도입을 위한 최종 투자결정(FID)을 내렸고, 핀란드는 지역난방용 LDR-50 개발을 추진하는 등 전력 생산 외 열공급 분야 까지 SMR 활용이 확대
- 원자력에너지기구(NEA)는 2050년 전 세계 SMR 설비용량이 30~150GW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대규모·단기간 건설 능력과 실제 발전단가에 대한 검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
- 폴란드에서는 Orlen과 Synthos가 합작한 OSGE(Orlen Synthos Green Energy)가 GE 히타치 BWRX-300의 독점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브워츠와베크(Włocławek), 오시비엥침 인근 스타비 모노프스키(Stawy Monowskie), 스타로바 볼라(Stalowa Wola) 등 3개 지역에 총 14기 건설을 추진
- 브워츠와베크는 폴란드 최초 SMR 도입 후보지로 최대 6기(총 1.8GW) 설치가 계획돼 있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및 부지조사가 진행 중이고, 시정부와 OSGE가 주민설명회 및 정보센터 운영을 추진

- 다만 Orlen과 Synthos 간 사업 주도권(General Partner) 및 투자·운영 권한을 둘러싼 이견이 지속되고 있으며, 폴란드 정부는 2026년 말까지 양측의 협력 지속 여부에 대한 결론 도출을 요구하는 상황
- OSGE는 첫 번째 BWRX-300의 2032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SMR 전력에 대해 계약차액제도(CfD)를 통한 지원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로, 예상 발전단가는 115~135유로/MWh(약 496~583PLN/MWh) 수준으로 제시
- 폴란드 정부는 현재 SMR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CfD 및 정부 보증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정책 결정이 폴란드 SMR 산업의 상용화 속도를 좌우할 전망
- 오폴레주(Opole), 친환경 교통·지역투자 확대 위해 BGK로부터 267백만 즈워티 차입(7.28)
 - 폴란드 오폴레주 정부는 폴란드 국책개발은행 BGK으로부터 총 267백만 즈워티 규모의 대출을 확보했으며, 해당 자금은 국가재건계획(KPO) 산하 ‘녹색 도시 전환 운영프로그램(Green Urban Transformation Operational Programme)’을 통해 지원될 예정
 - 대출금은 지역 내 계획된 인프라 및 친환경 투자사업에 활용될 예정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전기열차 8편성 도입이 포함
- Tauron, EIB로부터 11.2억 즈워티 차입하며 190.8MW 육상풍력단지 건설 추진(7.29)
 - 폴란드 전력기업 Tauron Polska Energia는 유럽투자은행(EIB)과 총 1,120백만 즈워티 규모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자금은 비엘코폴스카주(Wielkopolska) 소재 ‘미에이스카 구르카(Miejska Górka) 풍력단지’ 건설 관련 자본지출에 투입 예정
 - 미에이스카 구르카 풍력단지는 총 53기의 풍력터빈으로 설비용량은 190.8MW로 완공 시 폴란드 내 두 번째로 큰 육상풍력발전단지가 될 전망
- 폴란드 산업개발청(ARP), 폴란드산 풍력터빈 개발 착수(7.29)
 - 폴란드 산업개발청(ARP)은 국가 기술역량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국산 풍력터빈 개발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독일·덴마크 등 해외 제조사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기술 확보를 추진

- ARP는 폴란드산 풍력터빈이 Siemens Gamesa, Vestas, GE, Nordex 등 주요 외산 제품 대비 최대 10% 저렴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제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제권 확보를 통해 사이버보안 수준도 강화할 계획
- 다만 전체 부품의 100% 국산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 비중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추진해 투자자 기대 수준 이상의 성능 확보를 목표로 제시
- 한편, 폴란드 기업 Famur(그레네비아 그룹)은 독일 Enovation의 라이선스를 도입해 4~4.8MW급 풍력터빈 생산을 준비 중으로, 전체 부품의 약 75%를 폴란드 내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폴 글리비체市, 지역난방 연계형 최대 태양열 단지 건설(7.28)

- 글리비체(Gliwice)시는 지역난방공사(PEC) 부지 내 지역난방 연계형 태양열 집열기 1,135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 현재 약 50% 수준의 공정률을 기록
- 해당 사업은 태양열 설비, 12,000m³ 규모의 축열조, 다중연료 발전설비를 통합한 '그린 에너지 파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화석연료 사용 및 탄소배출 감축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함
- 축열조는 높이 약 37m 규모로 건설되며, 태양열로 생산한 열을 저장해 지역 난방망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예정이며, 다중연료 발전설비는 열 21MW·전력 4MW 규모의 고효율 열병합발전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
- 총사업비는 475백만 즈워티 이상이며, 재활용이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하는 발전설비를 포함해 2028년 말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임

○ Budimex, 리투아니아 연계 일환 변전소 확장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7.29)

- 폴란드 건설사 Budimex는 PSE가 발주한 Elk Bis 변전소 확장 및 Elk 220/110kV 변전소 재건 사업 입찰에서 최우선 제안자로 선정됐으며, 사업 규모는 약 195.5백만 즈워티에 달함
- 해당 사업은 폴란드-리투아니아 전력망 연계 프로젝트인 'Harmony Link'의 일부로, 220kV 지중 송전선(Elk Bis~폴란드 국경) 구축을 통해 양국 간 전력 교환 능력과 폴란드 북동부 지역의 전력 공급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

- 폴 'Port Polska' 신공항 지하 철도역·터널 사업 경쟁적 대화 개시(7.30)
 - CPK는 공항 지하 철도역 및 터널 건설 사업을 위한 경쟁적 대화를 개시했으며, Mirbud·Mostostal Warszawa·PORR·Strabag 등 4개 컨소시엄이 참여
 - 사업은 동·중앙 구간(철도역·환승센터 포함)과 서부 구간(터널·분기점 포함)으로 나뉘어 추진되며, 선정 사업자는 설계·조달·시공(EPC)을 일괄 수행하게 됨
 - 지하 철도역 및 승강장 공간은 약 160만m³ 규모로 바르샤바 중앙역의 약 3배에 달하며, 터널은 총연장 약 6km(폭 50~160m)로 계획돼 있음
 - CPK는 2026년 4분기 입찰서를 접수해 2027년 1분기 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며, 포트 폴스카 공항과 바르샤바-우치(Łódź) 간 고속 철도는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임
- 우카시에비치 항공연구소, 중·동유럽 최대 풍동시설 현대화 완료(7.31)
 - 폴란드 우카시에비치 항공연구소(Łukasiewicz-ILOT)는 국가재건계획(KPO) 재원 105백만 즈워티를 투입해 중·동유럽 최대 규모의 T-3 풍동시설 현대화를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착수
 - 해당 풍동은 유·무인 항공기, 우주기술, 방산 및 이중용도(dual-use) 기술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며, 유럽방위기금(EDF)과 유럽우주국(ESA) 지원 프로젝트 수행 기반으로 활용될 전망
- PGZ·BAE시스템즈, 영국 TNT 생산공장 설립 추진(7.31)
 - 폴 국영 방산기업 PGZ 산하 니트로켄(Nitro-Chem)과 영국 BAE시스템즈는 영국 내 TNT(트리니트로톨루엔) 생산시설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 추진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영국 정부도 사업 공동 지원에 참여할 예정
 - 신규 공장은 연간 2,000톤 규모의 TNT를 생산할 계획으로, 현재 니트로켄의 폴란드 내 생산능력(연 1만 톤)을 보완하는 추가 설비로 운영될 예정이며, 생산 이전이 아닌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추진됨
 - 양사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155mm 포탄, 드론, 대드론 시스템, 군용 차량 등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며, 폴란드는 탄약·화약 생산 역량 강화를 통해 유럽 방산 공급망 내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됨

4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

- 우, 항만 물류·농산물 대상 전시(戰時) 위험보험 지원 강화 추진(7.21)
 - 현재 수출신용기관(ECA)을 통해 고위험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백만 흐리우냐 규모의 재산 피해 보상제도를 운영 중
 - 전시 위험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1% 초과분에 대해 최대 3백만 흐리우냐를 지원하는 보험료 보전제도도 시행 중
- 우, 체르카시주에 64.6억 흐리우냐 규모 감자 가공단지 조성 추진(7.21)
 - 우크라 체르카시주 바이오센스 산업단지에서 총 64.6억 흐리우냐 규모 자국 최대 감자 심층 가공단지 건설사업 착수
- Ukrnafta·EBRD, 우크라 250MW급 가스 열병합발전소 건설 추진(7.21)
 - 우크라 국영 에너지기업 Ukrnafta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우크라이나 통합전력망(IPS-U) 지원을 위한 250MW급 가스 열병합발전(CHP) 사업 착수
 - 신규 발전소는 가스터빈·증기터빈을 결합한 복합화력(CCGT) 기반 설비로 구축되며, 총 발전용량은 약 250MW 규모
- MSC,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항만운영사 TIS 지분 51% 인수(7.22)
 - 세계 최대 해운사 MSC(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가 우크라이나 피브데니(Pivdennyi)항의 민간 항만운영사 TIS Group 지분 51%를 인수하며 최근 수년간 우크라이나 항만 부문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 단행
 - TIS는 우크라이나 화물 처리량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최대 민간 항만운영사로, 6개 전문 터미널과 연간 40만TEU 처리 능력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
- 우 Stetman, GomSpace와 10억 유로 규모 독자 위성통신망 구축 추진(7.23)
 - 우크라이나 위성통신기업 Stetman은 2027년부터 총 360기의 저궤도(LEO) 위성 발사를 시작해 독자 위성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
 - 동 사업은 덴마크 위성기업 GomSpace와의 합작법인(UASAT)을 통해 추진되며, 우크라 정부 및 군의 통신 수요 충족과 전자전 대응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함
 - 총 사업비는 10억 유로 이상으로 추산, 1단계로 2027년 SpaceX를 통해 위성 120기를 발사할 계획이며, 전체 위성망은 2030년까지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함

○ 에릭 슈미트, 우크라이나 부동산·드론 분야에 수천만 달러 투자(7.21)

- 前 구글 CEO 에릭 슈미트와 웬디 슈미트가 키이우 상업용 부동산 및 우크라이나 드론 기업에 수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단행
- 슈미트 부부는 우크라이나 투자사가 운영하는 키이우 소재 쇼핑센터 보유 펀드의 지분을 인수했으며, 투자 규모는 약 55백만~70백만 달러로 추정
- 아울러 우크라이나 무인기 개발·제조 기업에도 투자하며, 방산·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장기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는 모습

○ 우, 키이우에서 5G 시범서비스 개시, 전국 상용화 준비 본격화(7.23)

- 이동통신사 Kyivstar, Lifecell, Vodafone Ukraine가 키이우에서 개방형 5G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며, 리비우·하르키우·보로단카에 이은 4번째 5G 테스트베드 운영
- 키이우 전역에 300개 이상 기지국을 구축했으며, 시범서비스를 통해 최대 1Gbps 이상, 평균 600~700Mbps 수준의 데이터 전송속도 확인
- 우크라이나 정부는 오데사를 다음 5G 시범서비스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향후 전국 단위 차세대 통신망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우, 분산형 가스발전 설비 1.8GW 구축(7.23)

- 우크라이나 에너지부에 따르면 2026년 7월 21일 기준 분산형 가스발전 설비 약 1.8GW가 설치됐으며, 키이우주(219MW)가 최대 규모를 기록
- 2026년 3월 이후 388.8MW의 가스발전 설비가 추가 가동됐으며, 현재 247기 (총 532.2MW) 규모의 발전설비가 건설 중
- 2026년 상반기 풍력발전 414.8MW가 신규 설치돼 총 설비용량이 1.115GW로 확대됐으며, 태양광은 7.3GW, 에너지저장장치(ESS)는 600MW 이상으로 증가
- 우크라이나는 전력망 복구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가스발전 2.2GW, 풍력 3.6GW, 태양광 10GW, ESS 1.5GW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약 70억 유로의 투자 필요 전망

○ IMF, 우크라이나 EFF 1차 점검 완료 및 6.9억 달러 추가 지원 승인(7.21)

- IMF 이사회는 우크라이나 4년간 확대기금지원(EFF) 프로그램 1차 점검을 완료 하고, 5.03억 SDR(약 6.9억 달러) 규모의 2차 분할금 지급 승인

-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EFF 누적 지원액은 약 16억 SDR(약 22억 달러)로 확대됐으며,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정상 운영 중
- IMF는 2026년 3월 말 기준 재정·통화 관련 정량 목표는 모두 달성했으나, 6월 말 순국제준비금(NIR) 목표는 중동 분쟁 영향 등으로 미달했다고 평가
- 구조개혁 이행은 일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IMF는 재정·거버넌스·반부패·에너지·금융부문 개혁 일정의 차질을 지적하고 수정 계획 이행을 요구
- IMF는 우크라이나에 세수 확대, 조세회피 방지, 투자환경 개선, 국영기업 개혁, 공공투자 관리 강화 및 금융포용 확대 등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
- IMF는 EU 가입 추진과 지속적인 대외 자금 유치를 위해 개혁 이행의 일관성과 정책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우크라이나, 지속가능경제활동 분류체계(Taxonomy) 법안 마련 추진(7.20)

- 우크라이나 경제부와 환경부가 EU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 경제활동 및 지속가능 투자에 관한 법률」 초안을 공개하고, 녹색투자 유치 기반 마련 추진
- 법안은 지속가능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분류체계를 도입해 재건사업 관련 국제자본 유치와 그린워싱 방지를 목표로 함
- 적용 대상은 은행·금융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이며, 지속가능 투자 판단을 위한 공통 기준을 제공할 예정
- 지속가능 경제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경목표에 대한 실질적 기여 ▲타 환경목표에 대한 중대한 피해 방지 ▲기술기준 충족 ▲사회적 보호기준 준수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환경목표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및 해양자원 보호 ▲순환경제 전환 ▲오염 방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복원 등 6개 분야로 구성
- 기후변화 대응 분야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 및 재생원료 활용 등을 주요 요소로 포함
- 법안은 전 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개념을 반영해 생산공정뿐 아니라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를 요구
- 기술기준은 중앙정부가 별도 고시할 예정이며, 과학적 근거와 기술중립성, 정량 지표 활용 및 검증 가능성을 원칙으로 설정할 계획

- 아울러 파리협정 목표에 따라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향을 반영했으며, 고체 화석연료 기반 발전은 지속가능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
- 사회적 보호기준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기업과 인권 원칙, ILO 핵심노동기준 및 국제인권장전 준수를 요구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환경 관련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허위·부실 공시 또는 근거 없는 친환경 투자 홍보 시 법적 책임이 부과될 예정
- 우 정부는 지속가능 경제활동 관련 기술기준 마련 작업을 약 30%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EU 규제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맞춰 기준을 주기적으로 개정할 계획임
- 우 정부, 키이우 '오션 플라자' 쇼핑몰 1억 달러 규모 민영화 추진(7.27)
 - 우 국유재산기금(SPFU)은 키이우 소재 Ocean Plaza 쇼핑몰의 100%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며, 예상 매각가는 약 1억 달러로, 2026년 12월 경 공개입찰이 실시될 전망임
- 리비우 기업 Zakhidna VES 3, 볼린주 50MW 풍력발전단지 건설 추진(7.27)
 - 우크라이나 리비우 소재 Zakhidna VES 3는 볼린주 루츠크 지역에 총 50MW 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추진 중이며, 3.3~8MW급 풍력터빈 약 15기를 설치할 계획
 - 동 사업은 Horodyshche 마을 인근 부지에 조성되며, 연간 약 175,000MWh의 전력을 생산해 우크라이나 통합전력망에 공급할 예정
- EBRD, 우크라이나 풍력발전 사업에 최대 7천만 유로 지원 승인(7.27)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미국계 VR Capital Group 산하 Elementum Energy에 최대 7천만 유로 규모의 대출을 승인하고, 우크라이나 내 총 258MW 규모 풍력 발전단지 2개 건설을 지원할 예정
 - 동 사업은 국제금융공사(IFC) 등과 공동으로 조성하는 최대 250백만 유로 규모 금융 패키지의 일부로, 총 사업비는 약 401백만 유로로 추산됨
 - 남부 지역 58MW, 서부 지역 200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되며, 110kV 송전선 및 기존 변전소 연계 설비도 함께 구축될 계획
- EBRD, 우크라이나 키이우 지역난방공사 지원 위해 50백만 유로 대출 승인(7.27)
 - EBRD가 전시 상황에서 키이우시 공공유틸리티 기업 Kyivteploenergo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대 50백만 유로 규모의 대출 지원을 승인

- 지금은 학교, 병원, 주거시설 및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과 전력 생산 유지에 활용되며, 전쟁 피해와 국내실향민(IDPs)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 **우크라이나, 피우데니항 인근 물류·환적 허브 개발 추진(7.28)**

- 오데사주가 피우데니(Pivdennyi)항 인근 빌리아리(Biliari) 지역에 총 7ha 규모의 물류·환적 복합단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 사업은 총면적 14,688m² 규모의 창고 4개동을 포함, 약 84,000m³의 저장능력과 시간당 150톤의 화물 처리능력을 갖출 계획
- 총 투자 규모는 부지 매입을 포함해 약 857만 달러로 추산, 철도 및 주요 도로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곡물·유지종자·비료 등 농산물 및 벌크화물 물류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

○ **Nestlé, 우크라이나 사업 확대 위해 2026년 100억 흐리우냐 투자 추진(7.27)**

○ **막심 크리파, 호텔 우크라이나 현대화에 1억 흐리우냐 이상 투자 계획(7.28)**

- 우 사업가 막심 크리파(Maksym Krippa)는 2024년 약 30억 흐리우냐에 민영화 방식으로 인수한 키이우 소재 호텔 우크라이나(Hotel Ukraine)의 현대화를 위해 2026년 중 1억 흐리우냐 이상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
- 호텔을 기존 4성급으로 유지하며 전면 개보수할 경우 35백만~45백만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5성급 호텔로 전환할 경우 투자 규모는 55백만~75백만 달러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오데사항만공장(OPP) 민영화 관심 확대(7.29)**

- 미국·이란 갈등 격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글로벌 암모니아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우크라이나 오데사항만공장(Odesa Port Plant, OPP)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
- 현재 미국·아시아·중동 소재 4개 해외 기업이 오데사항만공장 민영화 입찰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비밀유지협약(NDA)을 체결한 후 기업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오데사항만공장 민영화 입찰은 2026년 10월 19일 실시될 예정이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6년 7월 공장 가치 재평가를 반영해 최초 입찰가를 4% 인하한 43억 흐리우나로 조정

- 오데사항만공장은 암모니아 생산 및 수출 인프라를 보유한 전략 자산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암모니아 비료 산업의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음

○ 우크라이나 10월 대형 민영화 추진, 오데사항 화학공장 등 4개 자산 매각(7.30)

- 우 정부는 10월 대형 민영화 및 제재 물수자산 매각 일정을 확정했으며, 국유재산 기금이 Prozorro.Sale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총 4개 자산을 공개 매각할 예정
- 매각 대상은 △10월 13일 수미히임프롬(Sumykhimprom, 화학 비료) △10월 19일 오데사항 화학공장(Odessa Port Plant) △10월 20일 데무린스키 광산 선광공장(티타늄·지르코늄 광석) △모토르데탈 코노토프(Motordetal-Konotop, 엔진부품 제조) 등
- 정부는 국유기업 민영화 수입은 국가예산 및 국방·안보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번 민영화가 기업 정상화와 고용 창출, 해외 투자 유치 및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Lemtrans 그룹, 우크라이나 서부 복합물류터미널 지분 투자(7.30)

- 우 물류기업 Lemtrans 그룹 계열사 Levada Cargo는 자카르파티아주 Batovo의 유로브리지(Eurobridge) 복합물류터미널 지분을 취득했으며, 독일 HHLA International은 과반 지분과 운영권을 유지하기로 함
- 해당 터미널은 초프(Chop)·솔로브카(Solovka) 국경검문소 인근에 위치하며, 유럽 표준궤(1,435mm)와 우크라이나 광궤(1,520mm)를 모두 갖춰 우크라이나와 EU 간 화물 환적 거점 역할을 수행

○ 드래곤캐피털, 키이우 '스마트 플라자 오볼론' 매각 추진(7.31)

- 우 투자회사 드래곤캐피털은 키이우 오볼론 지역의 쇼핑몰 '스마트 플라자 오볼론 (Smart Plaza Obolon)'을 리비우 소재 기업 레비테르(Leviter)에 매각할 계획
- 스마트 플라자 오볼론은 2019년 개장한 역세권 쇼핑몰(임대면적 9,000㎡ 이상)로, 소유사 바르콘드의 매출은 2025년 전년 대비 17% 증가한 133.7백만 흐리우나를 기록했으며, 2026년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하는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 중

1. 개요 및 배경

- 우크라이나 항만의 전략적 가치: 우크라이나 항만 인프라는 농산물(곡물, 식물성 기름) 및 철강 수출을 위한 국가 경제의 핵심 혈관임
- 투자 환경의 변화: 전쟁 전에는 정부 차원의 민관협력(PPP) 및 컨세션(Concession, 장기 운영권 임대) 정책을 통해 해외 대형 항만 운용사를 유치했으며, 전쟁 이후에는 다뉴브강 항만(이즈마일, 레니)으로의 물류 다변화 및 흑해 곡물 회랑의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민간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

2. 주요 투자 주체 및 현황

① 해외 글로벌 기업 및 항만 운용사

○ DP World(아랍에미리트)

- 투자 내용: 피브데니(Pivdennyi) 항구의 TIS 컨테이너 터미널 지분 과반을 인수하며 우크라이나 항만 시장에 본격 진입
- 주요 관심사: 동유럽 및 흑해 물류 거점 확보, 컨테이너 및 화물 처리 능력 확장

○ HHLA(독일)

- 투자 내용: 오데사(Odesa) 항구의 컨테이너 터미널(CTO)을 오랜 기간 운영하며 설비 현대화 및 크레인 인프라 투자 지속
- 주요 관심사: 유럽-아시아를 잇는 터미널 네트워크 강화 및 안정적인 컨테이너 유통망 구축

○ QTerminals(카타르)

- 투자 내용: 미콜라이우(Mykolaiv)의 올비아(Olvia) 항만 컨세션 사업자로 선정되어 장기 투자를 약속
- 주요 관심사: 곡물 및 건화물(Bulk cargo) 처리 능력 대폭 증대 및 흑해 지역 물류 포트폴리오 확장

○ Bunge / COFCO International (미국 / 중국)

- 투자 내용 : 각각 오데사 및 미콜라이우 항구 내 대규모 곡물 터미널 및 압착 공장, 선적 설비 투자
- 주요 관심사 : 글로벌 곡물 공급망 선점 및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직수출 경로 확보

② 우크라이나 대형 농업·물류 기업(Domestic Agrilogistic Giants)

○ Kernel(커널)

- 투자 내용 : 초르노모르스크(Chornomorsk) 항구 내 곡물 터미널 인프라 지속 확장 및 수송선·바지선 확보
- 주요 관심사 : 자사 농산물 수출 물류비 절감 및 대규모 선적 효율 증대

○ Nibulon(니블론)

- 투자 내용 : 전쟁 이후 다뉴브강 연안인 이즈마일(Izmail) 항구에 베사라브스카(Bessarabska) 신규 곡물 터미널을 건설하고 바지선 운송망 확충
- 주요 관심사 : 흑해 봉쇄 리스크 극복, 다뉴브강-루마니아 콘스탄차 항구를 잇는 대체 수출 경로 확보

○ Risoil(리소일)

- 투자 내용 : 초르노모르스크 항구에 대형 곡물·식물유 터미널 구축 및 대형 수중 선석(Deep-water berth) 및 3D 곡물 선적 시스템 투자
- 주요 관심사 : 대형 화물선(Panamax급 등) 직접 접안 및 빠른 선적 처리를 통한 물류 경쟁력 확보

○ Allseeds(올시드)

- 투자 내용 : 피브데니 항구에 식물성 기름 및 곡물 터미널 단지 지속 확장
- 주요 관심사 : 해바라기유 수출 물량의 안정적 처리 및 대규모 저장 시설 확보

3. 투자자들의 핵심 전략적 이해관계

구분	주요 전략적 목표
농산물 수출 최적화	우크라이나 곡물 및 식물성 기름의 수출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병목 없는 자사 전용 터미널 인프라 확보
물류 경로 다변화	흑해 주요 항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 다뉴브강 내륙항만(이즈마일, 레니 등) 인프라 강화
대형 선박 접안 능력 확보	수심 준설 및 선석 확장을 통해 선박 대형화(Panamax, Post-Panamax)에 응하므로 수송 단가 절감
국제금융기구(IFC, EBRD) 협력	전쟁 재건 자금 및 자금 조달 안전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PPP/컨세션 자산 선점

4. 시사점 및 전망

- ☐ 민간 자본 주도의 재건, 전쟁 중에도 전 세계 식량 안보와 직결된 곡물 및 유류 터미널을 중심으로 민간 자본의 투자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 ☐ 다뉴브 항만의 위상 제고, 흑해 노선의 불확실성 때문에 다뉴브강 연안 항구들에 대한 투자가 급증했으며, 이는 향후에도 중요한 보조 수송로 역할을 할 것임
- ☐ 전후 재건 시장 선점, 전쟁 종식 또는 리스크 완화 시, 기존에 컨세션을 확보했거나 터미널을 소유한 플레이어들이 우크라 물류 재건의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주요 프로젝트 동향

①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 사업

① 석화(PDH/PP)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Grupa Azoty, ORLEN, 현대엔지니어링, KIND
- (사 업 비) 1,840백만불
- (사업내용) 폴리프로필렌 연간 40만톤 생산
- (추진현황) '19.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
'20. 10월 금융종결
'25. 8월 발주처, EPC 관련 보증 회수(Bond Call)
'25. 10월 ORLEN, Grupa Azoty에 250백만불 규모 투자안 제안
'25. 11월 현지SPC, 폴란드 법원에 구조조정 및 파산 신청
'26. 3월 현지SPC-현엔-카인드 구조조정(안) 관련 합의 완료

○(주요동향) '26년 하반기 중 폴란드 법원의 구조조정(안) 심의 결과 도출 예정이며, 합의내용 중 현금변제(→KIND, EUR 7.5백만) 입금완료

② Ursus 열병합 발전소 건설 운영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KIND, 남동발전, 베올리아, BHI
- (사 업 비) USD 453백만
- (사업기간) 2026.2.~2054.12. (건설 38개월, 운영 25년)
- (주요내용) 전기 110MWe, 열 90MWt 규모 열병합 발전소 건설 및 운영
- (추진현황) '23. 4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의결
'24. 1월~7월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F/S 컨설팅지원)
'25. 10월 타당성조사 재검증 용역 실시 (남동발전)
'25. 12월 KIND 투자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
'26. 9월 금융종결 및 NTP 발급
'29. 11월 COD

○ (주요동향) 주주 간 계약 등 주요 계약서 execution version 도출 협의

③ 폴란드 바르샤바 모듈러 주택 단지 개발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GS건설, Cordia, KIND
- (사 업 비) PLN 83.34백만
- (사업내용) 총 전용면적 5,296m², 중형(수평분리) 및 대형주택(수직분리) 36세대 건설
- (추진현황) '25. 2월 GS건설-Cordia 공동개발 논의
'25. 3월 GS건설, KIND向 사업참여 요청
'25. 6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승인
'25. 9월 GS건설-KIND간 공동개발업무협약의향서 체결
'25. 12월 투자심의 승인
'26. 1월 이사회 승인
'26. 6월 이사회 승인(법인설립)

○ (주요동향) '26년 6월 이사회 승인(자회사 설립)

'26년 8월초 투자계약 체결(KIND↔ZEIT)

'26년 8월중 법인인수(설립)

'26년 8월末 SPA 체결(KIND PL↔ZEIT)

* 폴란드법 상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인수조치 필요

④ 폴란드 카토비체 물류센터 개발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LX판토스, KIND, PIS펀드
- (사 업 비) € 129.7백만 (약 2,075억원)
- (사업내용) 총면적 108,977m² 규모 물류센터 5개동(Phase I: DC 1·2동, Phase II: DC 3,4,5동) 건설
- (추진현황) '24. 4월 물류센터 Phase 1 착공(시공사 자체자금으로 진행)
'25. 9월 물류센터 Phase 1 준공 및 운영 시작
'25. 11월 LH 사업 철회 및 KIND 사업 검토
'25. 12월 KIND 투자승인 / Phase 2 건축물 공사 착공
'26. 1월 금융종결
'26. 3분기 물류센터 Phase 2 준공(예정)

○ (주요동향) '26.7. DC3 준공 및 Occupancy Permit 완료

⑤ 폴란드 루블린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및 통합 관제센터

< 사업 개요 >

- (주관기관) 이에스이(주), (주)아이티코어스, (주)영국씨애피
- (수원정부) 폴란드 루블린시청
- (사업기간) '26.4.1 ~ '26.12.26.
- (사업예산) 700백만 원
- (사업내용) 스마트시티 개발 전략과 통합 관제센터 구축계획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기존 교통관제 고도화 및 실증사업 수행
- (추진현황) '26. 4월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 및 현지조사 수행, LOI 체결(4.28)
'26. 6월 MOU 체결(루블린시와 스마트시티 및 루블린 시 사업 추진 협력)
'26. 8월 현지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8.4.)
'26. 9월 국내 초청 역량강화연수 예정
'26.12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 (주요동향) 폴란드 현지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8.4)

⑥ 우크라이나 EIPP 전후 재건을 위한 산업전략 10개년 및 3개년 실행 계획 수립 사업

< 사업 개요 >

- (주관기관) 안진회계법인(재무), 현대경제연구원(경제), 스마트도시건축학회(도시)
- (수원정부) 우크라이나 경제농업환경부
- (사업기간) '26.2.13. ~ '26.9.10. (210일)
- (사업예산) 1,241백만원 (재위탁 용역금액 818 백만원)
- (사업내용) 전후 재건을 위한 산업구조를 클러스터 관점에서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함
- (추진현황) '26. 4월 착수보고회 개최 완료(온라인, 27일)
'26. 6월 세부실태조사 수행/URC 폴란드 행사참여(6. 22.~6. 28.)
'26. 7월 역량강화연수 및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국내)
'26. 9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 (주요동향) 착수보고회 개최(4.27), 현지조사 및 URC 재건회의 참석(6.25~26)

참고

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

프로젝트명	주요내용	담당기관	추진현황 및 계획
키 이 우 교 통 마스터플랜 (완 료)	• (1단계)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 우선사업 선정 및 pre-FS 등 * '23.12~'24.11 (수행 : 유신 컨소시엄) • (2단계)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 '24.5~'24.11 (수행 :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	KIND LH	•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키이우, '25.4월) • 후속사업(디지털교통 플랫폼 구축) 국토교통 ODA 추진
우만 스마트 시 티 마스터플랜 (완 료)	•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 * '23.9~'24.4(수행 : 제일Eng, 수자원공사 등)	KIND	•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24년 4월) • EDCF 사업화 모니터링 (계속)
보 리 스 필 공 항 현대화 등 재 건 (추 진 중)	•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 공항 확장·개발 (활주로 등)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한국 공항공사	• 현대화(공항시스템 개선) : '24년 외교부 ODA 선정, PMC 선정 ('24.10월) • 공항MP :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 • 확장FS : 국토부 지원 사업 과업착수('24.12), 최종보고('25.12)
부 차 시 하 수 처 리 시 설 재 건 (완 료)	•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환경산업 기술원	• Pre-F/S 수행결과 최종 평가 완료('26년 1월) * 환경부 F/S 지원사업 • 현지상황 모니터링 후 후속사업 추진여부 결정
댐 재건 및 현대화 등	• 카호우카 댐,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	수자원 공사	• '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수자원시설 정책, 기술자문), 용역 발주 예정('26년 3분기)
철 도 노 선 고속화 등 (추 진 중)	• 우키이우~폴 바르샤바 구간 중 4개 구간 타당성 조사 ①키이우~지토미르~루츠크~국경(약 375km) ②키이우~빈니차~리비우~국경(약 580km) ③키이우~지토미르~리브네~리비우~국경(약 505km) ④키이우~지토미르~루츠크~리비우~국경(약 525km) *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50→150km/h) 추진 중	철도공단 (* 운영 등 코레일 협업)	•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25년 12월) 및 착수 보고회 개최('25.3월) * 외교부 ODA 지원사업 •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 ('26.12월)